

근세후기 에도어에 나타나는 断定表現의 様相*

엄 필 교
(동서대학교)

1. 들어가기

「断定表現」이란 문 속에서 서술한 내용이나 논리에 관하여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달리 指定表現이라고도 한다.

断定表現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가치 판정을 나타내는, 소위 대자대우표 현과 함께 화자의 품위나 성격과 관련한 화자 자신에 대한 가치판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현대 일본어에서 단정의 문말표현은「だ・です・である」를, 그리고 古語에서는「なり・たり」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실제 「断定表現」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本稿에서는 근세 후기 에도어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의 작품 가운데에서 대화문 속에 나타난 단정표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滑稽本과 人情本の 대표적인 작품인 式亭三馬 『浮世風呂』와 『梅暦』를 분석자료로 택하였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동서대학교 프론티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II. 단정의 문말표현 형식

〈표1 단정의 문말표현 형식〉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だ系	401 (84.9)	296 (73.3)	86 (78.2)	61 (62.9)
である系	1 (0.2)	1 (0.2)	1 (0.9)	0 (0.0)
であります系	0 (0.0)	1 (0.2)	0 (0.0)	10 (10.3)
でありす系	0 (0.0)	0 (0.0)	0 (0.0)	3 (3.0)
でございます系	7 (1.5)	80 (19.8)	4 (3.6)	14 (14.4)
でございます系	45 (9.5)	17 (4.2)	2 (1.8)	1 (1.0)
でござへます	7 (1.5)	1 (0.5)	3 (2.7)	1 (1.0)
でござる系	3 (0.6)	2 (0.5)	0 (0.0)	0 (0.0)
やす	1 (0.2)	6 (1.5)	14 (12.7)	2 (2.1)
でござ(ん)す	0 (0.0)	0 (0.0)	0 (0.0)	4 (4.1)
ざんす	0 (0.0)	0 (0.0)	0 (0.0)	1 (1.0)
でおっす	0 (0.0)	0 (0.0)	0 (0.0)	2 (2.1)
でござっす	6 (1.3)	0 (0.0)	0 (0.0)	0 (0.0)
です	1 (0.2)	0 (0.0)	0 (0.0)	0 (0.0)
계	472 *(100)	404 (100)	110 (100)	99 (100)

* () 안의 숫자는 사용률을 나타냄.

〈표1〉은 兩 作品 속에 나타난 단정표현의 형식과 사용수를 성별로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대화문 속에 나타난 단정표현 중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조동사「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だ」는 남녀 모두 각각 60% 이상의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단정의 조동사 「だ」에 대해서는 拙稿¹⁾에서 고찰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だ」를 제외한 단정표현의 형식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である系」

〈표2〉는 양 작품에 나타난 「である」의 사용수를 성별로 나누어 조사한

1) 「江戸語における断定表現の男女差—断定の助動詞「ダ」と終助詞の連接について—」『日本学研究』第 30輯

것이며 <표3>은 「である」용례의 대인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2 「である」의 사용수〉

である系	作品	浮世風呂		梅暦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であった		0	1	0	0
であったのう		0	0	1	0
であったよ		1	0	0	0
	계	1	1	1	0
であらう		2	0	0	0
であらうて		1	0	0	0
であらうな		1	0	0	0
	계	4	0	0	0

〈표 3 「である」용례의 대인관계〉

である系 浮世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あったよ	とび八	仲間	対等	1
			계	1
	話し手=女性			
であった	けりこ	独言		1
			계	1
梅暦	話し手=男性			
であったのう	丹次郎	長	上→下	1
			계	1

- (1) おれがおそれた事にはの、越後の山家に五六十日も泊て居たが、タシカスだによってト、霜月下旬かであったよ。(浮世.250.14.とび→仲間)
- (2) 世に残らぬは惜いことでござります。ホンニ怜野集をお返し申すであった。(浮世.220.15.けり子→独言)
- (3) さやうでござります。何ぞ著述があつたでござりませうネ。世に残らぬは惜いことでござります。(浮世.220.13.けり子→かも子)
- (4) ほんにまアふしぎな所であつたのふ。(梅暦.83.10.丹次郎→お長)

「である」형식은 현대 일본어에서 口語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文章語에서 「だ」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근·현대 일본어의 단정의 조동사「だ」는 중세시대에 나타난 連語인 「である」가 변화한 것이며「である」는 「にてあり」가 변화한 것이라고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

「である」의 語史에 관한 연구는 山本正秀의 「であるの沿革」를 위시하여 많은 論考를 볼 수 있는데, 山本正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である」は、中世に「にてあり」が變化して生じたもので、その語形は早く成立を見たが、中世末すでに「ちゃ」「だ」となり、近世口語では、何か改まった感じのものであったらしく、殊に終止の場合、「である」は「ちゃ」「だ」にとって代られて普通には用い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湯沢博士の近世語の研究書を見ても、町人文芸で、「然らば一つ飲むであらう」(武道達者)

「京では天神であった難破が事か」(夕霧七年忌)のように、大半が「であらう」講義(平田講本など)の世界に伝統的にいくらか使われていたが、それも終止になると「でござる」「でござります」の丁寧体が「ちゃ」(じゃ)を用いて、「である」は用いていない。(中略)

江戸時代では、.....デアルは一般世人の口頭を離れ、次第に口語としては影を潜めて行ったらしい。上方江戸の文芸物を通じ、此語は極めて希有で、殊に後期江戸語の好個の口語資料たる洒落本等にも殆ど見付らない事は近世物の研究者から一様に聞くところである。²⁾

또 湯沢幸吉郎도 『徳川時代の言語研究』, 『国語史近世篇』, 『江戸言葉の研究』등에서 「であろう」「であった」「であります」의 용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である」가 사용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도 「であらうて·であらうな」「であったのう·で

2) 橋本博士還曆記念『国語学論集』

あったよ」와 같은 형으로 사용된 용례는 보이지만 「である」형으로 문을 종지하는 형식은 보이지 않았다. 사용자는 대부분 남성이지만 여성이 사용한 용례도 한번 나타났다.

용례수가 많지 않아 사용상의 특징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である」형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할 장면에서, 그리고 고연령층의 남성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예문 (2)는 화자가 여성인데 자신에게 독백조로 읊조리는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화자와 청자는 모두 책을 즐겨 읽는 교양을 갖춘 지식층의 여성이며, 예문(3)에서와 같이 상호간에 대부분 「ござります」형을 사용하고 있다.

2. 「であります系」

〈표4 「であります」의 사용수〉

であります系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であります	0	0	0	1
でありますアな	0	0	0	2
でありますね	0	0	0	2
でありますのさ	0	0	0	1
でありますよ(う)	0	1	0	6
でありましたよ	0	0	0	1
でありましたねへ	0	0	0	1
계	0	1	0	14

〈표5 「であります」용례의 대인관계〉

であります 浮世	話し手=女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どろ	舌	対等	1
計				1
梅曆	話し手=女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であります	お長	くま	下→上	1
でありますアな	米八	丹次郎	下→上	2

でありますね	お長	此糸	下→上	1
	米八	女性同士	対等	1
でありますのさ	米八	丹次郎	下→上	1
でありますよ(う)	お長	丹次郎	下→上	4
		お由	下→上	1
	お杉	芸者	下→上	1
でありましたヨ	お長	丹次郎	下→上	1
でありましたねへ	お由	藤兵衛	下→上	1
계				14

- (5) すかねへヨウも、ばかりしゆざいます。きざでありますヨウ
(浮世.141.10.どろ→舌)
- (6) 今日の朝参りには、なんでも尋ねよふと思つて、十五日を楽しみにして、出て来たんでありますアな。(梅暦.49.8.米八→丹次郎)
- (7) お長さんといふまことにいゝなづけのあるおまへさんに、こんなに苦勞するから、間抜けの行留りでありますのさ。(梅暦.56.11.米八→丹次郎)
- (8) オヤそふでございますかへ。知れないもんでありますね。
(梅暦.65.9.お長→此糸)

현대 일본어의 표준어에서 「であります」형은 문장어에서만 사용하며 대화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도 후기에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한 용례가 눈에 띄는데, 여기에 대해 中村通夫氏は、

この文献での使用率が口頭語でのそれを反映しているものとするれば、当時この言葉はかなりの使用度をもって行われていたと見て差し支えないであろう。若者・遊女・おしゃく・茶屋女といった人々の言葉として特徴的に現われ、女髪結や町家の女の例も、一・二散見するが、主に遊里の言葉として紹介せられている。³⁾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であります」系는 화자가 모두 여성이며 『浮世風呂』에서 한번, 그리고 『梅曆』에서는 14번이 나타났는데 이는 『梅曆』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遊女이며 「人情本」이라는 작품의 장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인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된 용례도 있지만 80% 이상이 <下→上>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표.5>에서 알 수 있다.

3. 「でありイす系」

〈표6 「でありイす」의 사용수〉

でありイす系	작품	浮世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でありイす		0	0	0	1
でありイせうネ		0	0	0	1
계					2

〈표7 「でありイす」용례의 대인관계〉

でありイす	梅曆	話し手 = 女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でありイす		此糸	かげ八	対等	1
でありイせうネ		お民	かげ八	対等	1
계					2

(9) 矢義の城さん所にかくまはれて居さッしやるといふことで有
りイす

(梅曆.231.16.此糸→かげ八)

(10) そうなりイしたら'さぞ嬉しいことでありイせうネ

(梅曆.230.8お民→かげ八)

助動詞 「いす」에 대해 『日本国語大辞典』에서 다음과 서술되어 있다.⁴⁾

3) 中村通夫, 「であります言葉」 『国語学研究九の四』, 1941

近世、江戸の遊里語。丁寧語。ます。(中略)明和(一七六四~七二)頃、江戸の吉原の遊女ことばとして発生し、後ながく用いられたが、岡場所の女郎なども用いていた。

『梅暦』에서만「でありイす」의 사용례가 두 번 나타났으며 화자와 청자 모두 遊女이며 가벼운 경의를 표하는 장면에서 나타났다.

4. 「でござる系」

〈표8 「でござる」의 사용수〉

でござる系	浮世風呂		梅 暦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でござる	3	0	0	0
でござるっサ	0	1	0	0
계	3	1	0	0

〈표9 「でござる」용례의 대인관계〉

でござる 浮世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でござる	かき	生酔	下→上	3
계				3
	話し手=女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でござるっサ	人柄のよきかみさま	そらおがみ	上→下	1
계				1

(11) イエ此頃は親類どもに病人がござって。(浮世.65.13.隠居→医者)

(12) 懐胎の女の腹が大きいとて、食を食はずには居らぬ道理でござる。

(浮世.100.3.柿・柚子→生酔)

(13) 長ゆもじといふ物は下卑た人のする業でござるッサ

(浮世.192.12.人柄のよきかみさま→そらおがみ)

「ござる」는 「ござある」에서 변화한 語로 「ある・いる」의 존경어로 사용되다가, 「ある・いる」의 정중어의 뜻으로 바뀌어 쓰인다.⁵⁾ 예문(11)에서 처럼 본동사로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용법은 남성에 한해서만 나타났으며 화자는 의사나 隱居, 俳諧師와 같은 비교적 고풍스러운 말투를 구사하는 노년층의 인물들 사이에서 사용한 예가 눈에 띄며 대개는 「でござる」형식의 조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でござる」는 連語로 단정의 뜻을 나타내는 「である」의 존경어와 정중한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でござる」「でござったが」「でござるっサ」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5. 「でございます系」

〈표10 「でございます」의 사용수〉

でございます系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でございます	3	41	2	7
ござい	2	3	0	0
でございますア	0	0	0	1
でございますて	0	1	0	0
でございますね(へ)	2	10	2	1
でございますのさ	0	4	0	0
でございますはな	0	1	0	0
でございますよ	0	13	0	5
でございますよね	0	2	0	0
ございました	0	4	0	0
ございましてね	0	1	0	0
계	7	80	4	14

〈표11 「でございます」 용례의 대인관계〉

5) 『日本国語大辞典』, 第2版, 5卷, 2001, p.722.

でございます浮世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います	番頭	甘次	下→上	1
		女	下→上	1
	水売り	湯客	下→上	1
でございます	金助	福助 (仲間)	対等	1
	湯客	湯客	対等	1
でございますね	そばの人	福助	対等	1
	番頭	甘次	下→上	1
計				7

でございます 浮世	話し手=女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います	三十四五のかみさん	お客	対等	4
	辰	己	対等	5
	いぬ	きち	対等	2
	きち	いぬ	対等	4
	ままごと		対等	1
	やす	女房	下→上	5
	婆	ねこ	対等	1
	そらおかみ	六十婆	下→上	9
	六十婆	そらおかみ	上→下	3
	たこ	いか	対等	5
	初	むす	下→上	2
でございます	えご	湯客	対等	3
でございますて	湯客	湯客	対等	1
でございますね	己	辰	対等	1
	いぬ	きち	対等	2
	そらおかみ	六十ばば	下→上	3
	たこ	いか	対等	1
	初	さめ	下→上	3
でございますのさ	辰	己	対等	1
	六十ばば	そらおかみ	上→下	2
	初	むす	下→上	1
でございますはな	六十ばば	そらおかみ	上→下	1

でございますよ	さめ	むす	上→下	1
	辰	己	対等	4
	いぬ	きち	対等	1
	うば	お嬢さん	下→上	2
	そらおかみ	六十ばば	下→上	1
	たこ	いか	対等	1
	むす	さめ	下→上	3
でございますよね	辰	己	対等	1
	やす	女房	下→上	1
ございました	己	辰	対等	2
	やす	女房	下→上	1
	六十ばば	そらおかみ	上→下	1
でございますてね	きち	いぬ	対等	1
計				80

でございます	梅暦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います		善者	かげ八	対等	1	
		善者	かげ八	対等	1	
		善者	此糸	対等	1	
		男	お由	対等	1	
計					4	
		話し手=女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います	お長		くも	下→上	1	
			藤	下→上	1	
	禿	青	下→上	1		
			杉	下→上	1	
			お民	女の声	見知らぬ	1
			此糸	善孝	対等	1
			かげ八	善孝	対等	1
でございますア		米八	丹次郎	下→上	1	
でございますね(へ)		お由	藤	下→上	1	
でございますよ			米八	丹次郎	下→上	3
			お長	丹次郎	下→上	1
			お由	藤	下→上	1
計					14	

- (14) 能苦さ。いくぢゃアねへ。ソリヤ、あたまへ。ハイ、子供
でござい(浮世.63.1.金助→福助)
- (15) 하이, 湯がはねます。子等でござい。しかも三十年跡はッ
 (浮世204.12.えご→湯客)
- (16) 女の子といふものは騒々しい者でございますネ。
 (浮世242.3.番頭→甘次)
- (17) それはへ今の子どもは巧者な事でございますよ。
 (浮世118.14.辰→己)
- (18) その上に上方風を好このむものも出て参りますし、ホンニ
 移り気なものでございますよねへ。
 (浮世119.5.辰→己)
- (19) 하이하이、イエおほきにお世話さまでございます。
 (梅曆.177.15.男→由)
- (20) 하이, チト御免なさいまし。陰八さんのお宅はこちらで
 ござい
 ますかネ。
 「ハイ, こちらでございます。(梅曆235.5.此糸→善孝)
- (21) さよふサネ, おさな馴染は格別かわいゝそふだから、御尤
 もでございますヨ。
 (梅曆.56.8.米八→丹次郎)

(15),(16)의 「ござい」는 「ございます」형의 하대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浮世風呂』에서만 사용례가 보였으며 화자는 남녀 모두 중·하류층 출신으로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에서만 나타났다. 여성의 화자인 <魚ご>는 하류층 출신 여성이다.

「でございます」는, 단정의 조동사+보조동사+敬讓의 조동사(대자경어)의 구성형식을 취하며 「ござる」의 연용형에 「ます」가 붙은「ござります」의 音便形이다. 현대 일본어에서「です」나「ます」와 함께 상대방에게 높은 경의를 가지고 사용하는 정중한 단정의 문말 표현으로 이는 대개 근세후기에 도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 외 「ござります」「ござへます」등의 형식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浮世風呂』와 『梅曆』에서 성별, 연령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사용상에 뚜렷한 위상차가 나타난다. 비교적 새로운 형인 「ご

ございます」는 <표1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상류층 이상의 중년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어른 흉내를 내는 장면 등에서 보이는데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ございます」의 R을 탈락에 의한 어감의 부드러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성이 사용한 예문도 보이긴 하지만 화자는 신분이 낮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들 보다 남성들이 언어사용에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년층이나 사회적 신분이 중·상류층 이상의 남성들이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그들은 대부분 「ござります」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표13>을 통해 알 수 있다.

6. 「ござります系」

<표12 「ござります」의 사용수>

ござります系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ござります	41	15	2	1
ござりますぞ	1	0	0	0
ござりますな	1	0	0	0
ござりますね	1	1	0	0
ござりまして	0	1	0	0
ござりませぬ	1	0	0	0
계	45	17	2	1

<표13 「ござります」용례의 대인관계>

ござります系	浮世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ござります	そばの人	隠居	福助	対等	1
			医者	対等	1
	番頭	女	生酔	下→上	21
			女	下→上	2
	ゆず・くり		生酔	下→上	5
	水売り		湯客	下→上	1
	点		鬼	下→上	3
	俳助		闇吉	下→上	7

でござりますぞ	俳助	闇吉	下→上	1
でござりますな	点兵衛	鬼角	下→上	1
でござりますね	番頭	甘次	下→上	1
でござりませぬ	俳助	闇吉	下→上	1
計				45

でござります	浮世	話し手=女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ります		きち	いぬ	対等	2
		いぬ	きち	対等	1
		やす	女房	下→上	1
		けりこ	かもこ	対等	11
でござりますね		かもこ	けりこ	対等	1
でござりましてネ		きち	いぬ	対等	1
計					17

でござります	梅曆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ります		男	**	上	2
計					2
		話し手女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ります		下女	丹次郎	下→上	1
計					1

** 청자가 불분명한 것은 공란으로 비워둠.

- (22) 仲景さまを二廻りで験が見えませぬから、孫貌さまを中た
びお願ひ申て、只今では丹溪さまでござります。(浮世.66.2.
隠居→医者)
- (23) ハイハイ。さやうでござります。別しておまへ様は御肥満
でお出でなさるから、お暑のお凌はお大体様ではござりま
すまい。(浮世.290.1.俳助→闇吉)
- (24) お客様の入らつしゃる度に、此子を御吹聴遊ばすさうで
ござります。(浮世129.16.きち→いぬ)
- (25) 先日どなたにか承りましたがあなたはひなぶりをもお詠み
なさるさうでござりますネ (浮世.221.3.かも子→けり子)

- (26) ハイおあつらへでござります(梅曆.86.7.下女→丹次郎)
 (27) エイ、お客より藝者衆の方が沢山でござります。(梅曆.133.
 12.男→くま)

<표13>을 통해, 「でござります系」는 당시 에도 시민의 표준적인 문체로 사용되어 왔으며 예의바른 정중한 표현으로 손색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용자를 살펴보면 『浮世風呂』에서는 남성이 사용한 용례가 45번, 여성은 17번 나타났으며 『梅曆』에서는 남녀가 각각 2번과 1번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화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청자와의 관계가 <대등>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아랫사람> 이 <손윗사람>에게 대할 때 나타난다. 그 중, 俳助라는 등장인물에 대해 式亭三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詞づかひにはなはだていねいをつくし、すべての事におの字と様の字をつけてものいふくせあり」

7. 「でござへます系」

<표14 「でござへます」의 사용수>

でござへます系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でござへます	5	0	2	1
でござへますね(へ)	1	0	0	0
でござへました	1	0	0	0
でござへましたね	0	0	1	0
でござへしたね	0	1	0	0
계	7	1	3	1

<표15 「でござへます」용례>

でござへます 浮世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數
でござへます	鼓八	衰微	下→上	4
	とび八	鬼	下→上	1
でござへますね	鼓八	衰微	下→上	1

でござへました	鼓八	衰微	下→上	1
計				7
	話し手 = 女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へしたね	かうまん	かさ・しつ	上→下	1
計				1

でござへます梅暦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ござへます	善孝	此糸	下→上	1
		かげ八	下→上	1
ござへましたね	善孝	此糸	下→上	1
計				3
	話し手 = 女性	聞き手	社会的関係	使用数
でござへます	かげ八	此糸	対等	1
計				1

- (28) とんだ夕ぎりでござへますネ。雪におこまりなすったらう。(浮世250.2.飛び八→鬼角)
- (29) あなたはモシ、衰微さんではござへませんか。(浮世.264.4.鼓八→衰微)
- (30) オヤオヤ、お出なせへしたか。大分お静でござへしたね。(浮世.169.5かうまん→二人の女性)
- (31) 時においらん、マアとんだわけでござへましたねネ。(梅暦.235.11.善→此糸)
- (32) たとへなんでもかでも友達をたのんでも廓のわけを聞きなさはづでござへます。(梅暦.231.11.かげ八→此糸)

「ございます」의 [ai]가 [e:]로 長音化하는「ござへます」형의 사용이 화자의 계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松村明나 小松寿雄 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松村明은 계층과의 관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江戸の町人のことばにおいては、[ai]という連母音は一般に「エー」と発音された。これは下層社会の下品でぞんざいなこと

ばにおいて特に普遍的であった。町人社会でも上品な、あるいははていねいなことばづかいの場合には、[ai]という連母音をそのまま保って撥音していた。江戸語においても、旗本・御家人などの武家言葉やいわゆるお屋敷言葉などになると、[ai]という連母音をそのまま保って発音するのが一般であった。6)

본 연구에서 「ごぜへます」의 사용은 <표15>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의 사용례가 훨씬 많이 나타났으며 사용자는 「鼓八」「とび八」라는 젊은 층과 중·하류 층의 신분이 사용하며 청자와의 관계는 스스럼없이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대부분 나타난다. 어감이 거칠어 교양과 품위가 떨어지게 들리므로 상류층이나 교양이 있는 여성들은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난다.

8. 「です系」

<표16 「です」의 사용수>

です系	作品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です		1	0	0	0

(33) 其膈擡翻胃に似て非なる者を鵜飼の症といふ。是すなはち物を食てすぐに吐くものです。おそらくは鵜飼の症でござらう。難治の症でござつ。

(浮世.66.16.医者→隠居)

현대 일본어에서 「です」는 단정의 정중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경의를 나타내는 대자대우표현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浮世風呂』에서 의사가 사용한 예문이 한번 나타났다. 그는 「でござつ」「でござる」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でござつ」형을 사용하는 인물은 그 외 俳諧師인데 「です」형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6) 『江戸語東京語の研究』, p.216.

화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상대방에게 가르치겠다는 다소 거만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です」와 「でござす」가 함께 나타난다.

9. 「やす」系

〈표17 「やす」의 사용수〉

やす系	作品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ござんやす		1	3	0	0
動詞の連用形 + やす(ね)		0	0	6	0
	계	1	3	6	0

〈표18 「やす」용례의 대인관계〉

やす系	浮世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ござんやす	源公		先公	対等	1
				계	1
		話し手 = 女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ござんやアす	子守り		お嬢さん	下→上	3
				계	3

やす系	梅曆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一般動詞の連用形+やす	藤兵衛		お由	上→下	3
			母人さん	上→下	1
	大勢	若者	上→下	1	
	鬼兵衛	かけ八	上→下	1	
				계	6

- (34) アイサ、さやうでござんやす。おやんなさいやしツ (浮世.94.14.源公→先公)
- (35) こつちは愚太郎さんのお守だよ。安くはないよ。お跡とりの若旦那さまのお守でござんやアす。(浮世.165.8.子守→お嬢さん)

- (36) そのかはり一寸ひとつおたのみが有やす。(梅曆161.16藤兵
→お由)
- (37) 親方にはまうけさせたことも有(る) そうだから、それに
免じてマア何かなしに済代をさせやす(梅曆.226.4.鬼兵衛
→かけ八)

에도어에는 「やす」「やんす」가 「ます」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가벼운 경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으며 「梅曆」에서는 남성이 사용예만 6번 보였는데 그 중에서 藤兵衛가 사용한 예문이 5번 나타났으며 나머지 한번은 고연령층의 鬼兵衛가 사용하고 있다. 청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10. 「でござす系」

〈표19 「でござす」의 사용수〉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でござす	5	0	0	0
でござすて	1	0	0	0
계	6	0	0	0

〈표20 「でござす」용례의 대인관계〉

浮世	話し手=男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でござす	医者	隠居	上→下	2
	鬼角	点助	上→下	3
でござすて	医者	隠居	上→下	1
계				6

(38) 坊主あたまは枕当の穢ぬのと是ばかりが能^でござす。

(浮世.261.8.鬼→点)

(39) おそらくは鵜飼の症でござらう。難治の症^でござす。

(浮世67.1.医者→隠居)

(40) 既に医書といふ内に外臺千金方などの説によれば、エ、何

といふ事がある。エ、何アノ何でござつて。(浮世.66.7.医者→隠居)

「でござつ」형은, 『浮世風呂』에서만 나타났으며 俳諧師인 鬼角의 사용례가 보이는데 그는 같은 회화 속에 「なすった」「ござります」와 같은 문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청자에 대한 태도는 스승으로의 위엄이 보인다. 화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상대방에게 가르치겠다는 다소 거만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자는 모두 남성이며 의사와 고연령층인 俳諧師 鬼角이다. 「でござつ」는 의사나 俳諧師와 같이 学者風の人物이 사용하는 점에서 볼 때 江戸末期에 나타난 「でござつ」는 화자의 품위나 성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1. 그 외의 형식

그 외	浮世風呂		梅曆	
	男性	女性	男性	女性
ざんす	0	0	0	1
でござす	0	0	0	1
でござんす	0	0	0	1
でござんさアな	0	0	0	1
でぎます	0	0	0	1
계				5

梅曆	話し手=女性	聞き手	社会的關係	使用数
でござす	此糸	米八	上→下	1
でござんす	花山	半兵衛	下→上	1
でおっす	此糸	お長	上→下	1
		かげ八	上→下	1
ざんす	花山	半兵衛	下→上	1
でざんさアな	お長	おいらん	下→上	1
でぎます	此糸	米八	上→下	1

(41) たしかに巢鴨とやらでおっす。(梅曆.232.1.此糸→かげ八)

- (42) 私きをばまるでこけにして居るんでざんさアな
 (梅曆.64.16.お長→おいらん)
- (43) ナニサそりやアモウ初めからして、表むきかほを踏れる合
 点で、世話を^{して}上エしたのが、私のあやまりで^さますか
 ら (梅曆.124.3.此糸→米八)
- (44) たしかに今のしはがれ聲は、花町さんの客人で、宵に上ッ
 た番頭風俗、私キのことをいろいろと聞なましたお方でご
ざんす (梅曆.152.11.花山→半兵衛)

「ざんす」는 「である」의 정중한 형으로 「ござんす」에서 변한 「おざん
 す」가 다시 變化한 語이며 吉原丁子屋가 使用하던 것이 遊里語로 擴大한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国語大辞典) 「ざんす」나 「ざます」는 現代 日
 本語의 「です」「でございます」에 해당하는 정중한 표현이지만, 위에 언급
 한 것처럼 江戸末期에는 遊女語로 여성들 사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
 며 『浮世風呂』에서는 사용한 예문이 보이지 않는다.

III. 맺음말

이상으로 근세후기 에도어에 나타나는 단정의 문말형식 가운데 「ダ」를 제
 외한 「である・であります・でござる・でございます・でござへま
 す」의 형식을 滑稽本과 人情本の 대표적인 작품인 『浮世風呂』와 『梅曆』
 의 자료를 통해 이들 단정표현의 형식이 실제로 어떠한 사용실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각 작품의 대화문 속에 나타난 문말형식은 화자의 속성이나 성별,
 연령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나 대화
 의 장면 등에 따라서도 구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 일본어의 표준어와 비교해 볼 때 용법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엄필교, 「江戸語における断定表現の男女差—断定の助動詞「ダ」と終助詞の連接について—」, 『日本学研究』, 第30輯, 2010.
- _____, 「幕府末・明治期における断定表現の男女差—断定の助動詞「ダ」と終助詞の連接について—」, 『比較日本学』, 第22輯, 2010.
- 中村通夫, 「であります言葉」, 『国語研究九の四』, 1941.
- 吉川泰雄, 『近代語誌』, 角川書店, 1977.
- 岩淵 匡, 「断定・否定の助動詞」, 『研究資料日本文法』, 明治書院, 1985.
- 辻村敏樹, 「ございますの扱い」, 『敬語の史的研究』, 東京堂, 1968.
- _____, 「「です」の用法—近世語から現代語へ—」
- 松村 明扁, 『増補・戸語東京語の研究』, 東京堂出版, 1998.
- _____, 『助詞・助動詞詳説』, 学燈社, 1969.
- 橋本信吉, 『国語学論集』, 1981.
- 山本正秀, 「デアルの沿革」, 『橋本博士還暦記念集』, 岩波書店, 1951.

❖ ABSTRACT

Trend of conclusive expressions in Post-Modern Edo-language

Um phil kyo

From Post-Modern Edo-language of Japan, it is possible to find expression formats related to current Tokyo language. However, in some cases, Tokyo language and Edo-language has the same format but different usage. One example is the ending portion of a sentence.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nclusive expressions of Edo-language in literary works excluding the usage of 「ダ」. Various formats of conclusive expressions appear in a conversation, and the usage is closely related to the speaker's sex, age, and social status. Also from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see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a speaker and a listener and a conversation circumstance has an effect on the usage of conclusive expressions. In addition, usage does not conform to the current standard Japanese.

1. Currently 「である(dearu)」 format is seldom used in speaking, it is used with 「だ」 only in writing. The study found no case of 「である(dearu)」 in conclusive expressions but some use of 「であろうて(dearoute) ·であらうな(dearouna)」 「であったのう(deattanou) ·であったよ(deattayo)」 only in old aged male.

2. 「であります(dearimasu)」 format is a typical Edo-language used by society-women (Japanese hostess who has a good education and an elegant speaking skills). This format was used once in 『浮世風呂』 (ukiyoburo) and 14 times in 『梅暦』(umegoyomi), but speakers were always a female. The reason for 14 occurrences in 『梅暦』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main characters are society-women and genre is 「人情本(ninjouboun)」 which is popular type of cultural literature (based on humanity and romance) in late Edo period.

3. 「でござる」 format is originally used as a respect-language but later changed to a polite language. The format is always used by male. It is a male language used by old aged people with a genteel manner such as a medical

doctor, a retired man, or a funny-song writer.

4. 「ございます(gozaimasu) · ごぜへます(gozeemasu)」

The study found the speaker's social status has a connection with the use of 「ごぜへます(gozeemasu)」 format. Which is 「ございます(gozaimasu)」 format but instead of [ai], long vowel [e:] is used.

「ごぜへます(gozeemasu)」 is more used by a female than a male and only used by young and mid-to-low class people. The format has a tough nuance and less elegant feel, therefore high class and/or educated ladies have a clear tendency to avoiding it

Key Words

문말형식, 단정표현, 에도어, 浮世風呂, 梅曆, 위상어, 敬意度

conclusive expressions Edo-language ukiyoburo umegoyomi status-expression

polite-expression

논문접수일: 2011. 11. 13.

심사완료일: 2011. 12. 07.

게재확정일: 2011. 12. 15.